‘가정의 달’ 무색… 가정폭력·아동학대 여전

광주·전남, 최근 3년 증가세…폭력 대물림·신고 기피
가해자 상담연계 실효성 한계…“초기 개입 강화해야”

5월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이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폭력이 반복·은폐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되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폭력의 대물림’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2023년 946건, 2024년 753건, 2025년 7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각각 971명, 747명, 788명이었다. 특히 올해 구속 인원은 23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는 2023년 188건에서 2024년 194건, 올해 226건으로 늘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01명, 234명, 263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2023년 7009건에서 올해 8283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도 같은 기간 905건에서 985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의존,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폭력이 장기간 반복된 뒤에야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언과 통제를 경험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폭력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과거 폭력을 행사했던 부모가 노년기에 자녀의 폭력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물림’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고 이후에도 상담과 보호 체계로 실제 연결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경찰이 상담기관 연계를 의뢰하더라도 상당수 가해자가 상담소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신자 송광한가족상담센터장은 “경찰이 상담기관으로 연계해도 실제 방문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건 직후에는 상담 의사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끝난 일’이라며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한 채 접근금지 명령이나 법원 보호처분 단계에서야 상담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언급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담 참여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며 “초기 분리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 아동·장애인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축소 역시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정부 예산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2024년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운영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또 여성가족부 등록 기준 가정폭력 전담 상담소는 광주 2곳, 전남 4곳에 불과하다. 성폭력 통합상담소 등을 포함해도 광주 4곳, 전남 8곳 수준으로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백 없는 수사…즉각 기소” 촉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1년 5개월 깜깜이 조사 우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보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구속자도, 기소된 사람도 없다”며 “179명의 희생 앞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5명을 신병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검찰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기소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참사의 핵심 원인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이 해체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수사 인력 축소는 수사 동력 약화와 진상 규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식적인 수사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공 전문 인력을 보강해 참사의 핵심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향후 기소 방향을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찰과 항철위 모두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 발표 이후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의문이 크다”며 “1년 5개월간 이어진 ‘깜깜이 조사’를 끝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지연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일 뿐”이라며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투표했어요’ 3일 광주 서구 동천동 광림초등학교 늘봄교실에 마련된 동천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한 유권자가 인증샷을 찍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피살 여고생에 달려간 학생 ‘의사상자’ 신청

광주 광산구가 괴한의 흉기 습격을 받은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군(17)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의사상자 지정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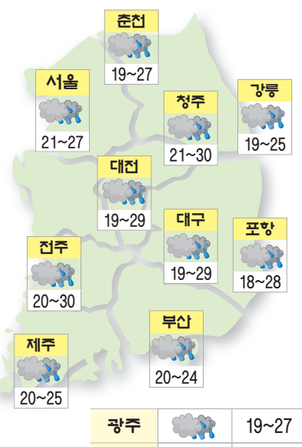
A군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이채원(17)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사건 직후 전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군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당시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자료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범죄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A군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해짐 19:43 달뜸 23:02 달짐 08:07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19~27
	목포	20~26
	여수	19~24
	순천	19~26
	구례	18~27
전남	해남	19~25
	완도	19~25
	흑산도	18~23
	고흥	19~25
	진도	19~25

목포	밀물(고)	04:34 / 16:20
	썰물(저)	09:53 / 21:37
여수	밀물(고)	05:20 / 17:01
	썰물(저)	11:03 / 23:44

미성년자 공갈·협박 20대

만년필 ○…미성년자를 협박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2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갈,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A씨는 지난 3월 제주 일원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10대 B군(16)을 협박해 오토바이를 빼앗고 반환 대가로 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또 C군(17)에게 무면허·번호판 미부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216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록증 등을 빼앗았다고. 임영진 기자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바른태양광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고운태양광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티아이솔라1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자희태양광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티아이솔라1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케이에스제이에너지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티아이솔라1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총사원동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유한회사 온빛태양광발전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28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28일 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주식회사 티아이솔라19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12, 421호(치평동,골든빌오피스텔)
청산인 김 기 납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 · 문화 · 관광중심 월간지
전라도人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아이디가 있으셔야 구독하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iTV
구독 · 좋아요 · 알람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茶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흥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회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